

Flash Time

항상 새로운 소식에 목마른 에디터에게 귀가 번쩍, 침이 꿀꺽 삼켜지는 신나는 소식들이 세계 곳곳에서 전해져왔다. 한정품만 선보이는 웹사이트, 플랫폼 슈즈의 전성기를 일찌감치 예견한 레페토, 요지 아마모토와 미키모토의 만남 등 흥미진진한 소식으로 가득한 5월의 이슈! 에디터 | 정희경(heekyung@noblesse.com), 김미진(modamijin@noblesse.com) 사진제공 | 퍼스트뷰 코리아(Firstview korea)

20개의 리미티드 에디션

소수의 컬렉션을 소장하고자 하는 모두의 염원이 하늘을 찌르는 요즘, 이 개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간편한 영특한 인터넷 브랜드가 런던에 등장해 화제다. 20ltd라고 불리는 이 브랜드는 이름 그대로 20개의 리미티드 에디션을 인터넷에 선보인다. 자칫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소개하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보면 귀가 솔깃할 것이다. 대개 이미 럭셔리 브랜드로 대변되는 이름들이기 때문! 첫 라운드로 선보이는 20개의 제품 리스트에는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 패션 디자이너 에밀리오 푸치(Emilio Pucci)와 데릭 램(Derek Lam),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크 뉴슨(Marc Newson)과 마르셀 원더스(Marcel Wanders), 영국의 맞춤 향수 브랜드 오몬드 제인(Ormonde Jayne)과 밀러 해리스(Miller Harris) 등 화려한 이름들이 속속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이 제품들은 모두 20ltd 사이트를 위해 단독 디자인한 아이템으로 각 제품마다 한정 수량만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있다면 서둘러 것. 매진된 제품은 대기 중인 다음 제품으로 교체된다고. www.20ltd.com



현지 취재 | 여인해(런던 통신원)



Belladone Island of Dior Joaillerie

기묘한 자연의 형태를 상상하는 일,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는 일은 어쩌면 간단할지 모르다. 이를 고가의 금속과 보석으로 재현하는 일에 비한다면 말이다. 매 시즌 독특한 디자인과 프레젠테이션으로 확실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디올 조얼리어의 빅투아르 드 카스텔라니 올해도 멋진 컬렉션을 선보였다. 마치 끈끈이주걱처럼 이슬이 맺힌 듯한 식물과 꽃, 나비 형상의 미묘하게 움직이는 주얼리를 선보인 것. 전설의 해변, 벨라돈 섬의 식물을 모티브로 제작한 주얼리는 지난 1월 12일 첫선을 보였고 파리 컬렉션 기간에 기메 미술관에서 다시 특별한 전시를 통해 선보였다. 가상 사이버 공간에서 디자인 컨셉을 보여주는 컴퓨터 그래픽부터 설치에 이르기까지 기발한 상상력, 장인들의 뛰어난 세공, 첨단 과학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멋진 전시는 현대화를 향한 패션이 나아갈 길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Kartell by Moschino

지난 1월 LOVE 프린트를 활용한 '마드모아젤 체어'를 내놓더니 또다시 새로운 버전의 '마드모아젤 à la mode'를 선보이는 모스키노와 카르텔. 모스키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로셀라 자르디니는 필립 스타키 디자인한 카르텔 체어에 모스키노의 유명한 시그니처 프린트 중 하나인 구름 모티브를 접목했다. 마드모아젤 체어는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밀라노에 있는 '살로네 델 모빌레(Salone Del Mobile)'에서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